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영화와 드라마로 보는 20세기 말의 콜롬비아: 마약, 살인 청부업자, 파블로 에스코바르

송병선

1. 국내 출시된 콜롬비아 관련 영화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영화나 동영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나 정치 혹은 사회를 가르칠 경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혹은 칠레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양과정 학생들에게는 우리말 자막이 필요한데, 국내에 출시된 현대 라틴아메리카 관련 영화나 기록물은 주로 이 세 나라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콜롬비아와 관련된 영화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콜롬비아의 현실과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에밀리오 마이예 감독의 「로사리오 티헤라스」(2005)와 세르히오 카브레라 감독의 「패배는 방법의 문제」(2005), 그리고 조슈아 마스틴 감독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2004),¹⁾ 펠리페 마르티네스 감독의 「블러프」(2007), 안드레아 디 스테파노감독의 「에스코바르: 잃어버린 천국」

1) 여기서 다루는 네 편의 영화 국내 DVD 출시 제목은 원제목과 다르다. 「로사리오 티헤라스」는 「로사리오」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면서 가위(tijeras)에 숨겨진 의미를 무시한다. 또한 「패배는 방법의 문제」는 「아트 오브 시크릿」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것 또한 이 영화의 내용과는 다소 무관한 제목이다. 그리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기쁨 있는 마리아」로 출시되면서 성모송과의 관련을 간과하고 있으며, 「시장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모두 원제목을 사용하기로 한다.

(2014), 그리고 미국 텔레비전 미니시리즈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나르코스」(2015)이다. 이 여섯 편의 작품 중에서 「블러프」와 「패배는 방법의 문제」는 콜롬비아 사회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무능과 악행을 고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네 편은 공통적으로 마약문제를 다루면서, 1980년대 이후 콜롬비아의 상징처럼 여기던 살인청부업자의 문화와 마약밀매가 콜롬비아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마약과 폭력을 소재로 전개되는 콜롬비아 관련 영화는 이미 국내에 몇 편이 출시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호르헤 알리

트리아나(Jorge Ali Triana) 감독의 「시장 오이디푸스」(1996), 앤드류 데이비스(Andrew Davis) 감독의 「콜래트럴 데미지」(2002)가 있다. 「시장 오이디푸스」는 게릴라와 정부의 대립을 비롯하여, 마약과 관련된 좌익 게릴라와 우익 무장 민병대의 싸움을 그리면서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상 문제를 보여주지만, 개인의 죄의식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압도한다. 한편 「콜래트럴 데미지」는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연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콜롬비아 마약업자의 테러로 아내와 아이를 잃은 주인공이 복수에 나서는 전형적인 ‘람보’ 스타일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런 작품은 콜롬비아의 마약문제와 관련하여 수업시간에 다루기에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오이디푸스」가 마약과 폭력으로 찢든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콜래트럴 데미지」는 콜롬비아와 미국을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분법 아래서 다루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라서, 콜롬비아의 현실을 미국의 관점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네 편의 작품은 국내의 대중매체에 종종 등장하는 콜롬비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즉, 콜롬비아의 아



「에스코바르: 잃어버린 천국」 포스터
(출처: <http://www.nochedecine.com>)

이콘이 되어버린 마약밀매 과정과 살인청부업자의 폭력을 다룬다. 그리고 여성, 소수자, 길거리의 아이, 거지, 범죄자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면서, 주변인을 향한 사회의 시선 변화라는 1990년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2. 마약밀매와 잉여 인간의 현실

20세기 후반의 콜롬비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밀매는 핵심 요소이다. 콜롬비아의 마약밀매는 1960년대 저질 마리화나를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1974년과 1980년 사이에 콜롬비아의 주요 마약밀매단이 등장한다. 메데인에 거점을 둔 두세 개의 커다란 그룹과 로드리게스 오르후엘라가 이끄는 그룹, 칼리의 두세 개 소규모 그룹, 카를로스 레데르가 이끄는 그룹이 그것이다. 알폰소 로페스 미첼손(Alfonso López Michelson) 정부(1974-1978), 훌리오 세사르 투르바이(Julio César Turbay) 정부(1978-1982)는 마약밀매가 향후 콜롬비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이들 그룹은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로 재편된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마약사범 인도정책 때문에 정부와 충돌한다. 이 기간에 마약단체와 국가기관, 그리고 우익 무장 민병대의 폭력행위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마약전쟁’이라고 알려진 이 시기에 폭력행위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 전쟁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두 카르텔이 제안한 협상을 진행하는 시기에 일어났다. 한편 마약밀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콜롬비아 사회에 고착시키면서 사회계급을 이동시키고, 특권층에 새로운 주체들이 삽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마약밀매 문화는 잉여의 문화, 사조직 부대의 문화, 불법의 문화이며, 실제로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면서, 굳게 닫혀있던 보수적 상류층 안에 파리를 틔운다.

1990년대 이후 콜롬비아 사회에서 사회정치적 폭력과 마약밀매는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의 콜롬비아 영화와 문학

은 아이러니와 풍자를 통해 마약밀매업자가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로사리오 티헤라스」는 콜롬비아에서 마약밀매는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콜롬비아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법칙은 복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에서도 마약밀매단원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보고타의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로사리오 티헤라스」가 마약밀매의 부산물인 살인청부업자의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현대 문화에서 이들은 죽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살인청부업자의 문화는 마약밀매가 절정이던 시기에 메데인에서 생긴 일련의 폭력 사태로부터 영감을 받은 미학이자 주제이다. 정치적·경제적 영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밀매업자에게 고용된 십대 살인청부업자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이 문화는 주변성과 물질주의를 다룬다. 또한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몰라, 즉 마약을 인체에 넣어 운반하는 여자를 다룬다. 이 두 편의 영화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콜롬비아를 보여주는 버림과 굴욕의 인간, 즉 마약밀매 정책의 쓰레기이며,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사용되다가 효용성이 떨어지면 용도 폐기되는 잉여 인간의 현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잉여 인간이란 글자 그대로 ‘남는 인간’이다. 즉, 사회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콜롬비아에서 이런 잉여 인간은 바로 폭력적이고 시장에서 소외된 무법자이며 굴욕적인 존재이고, 생산-소비, 합법-불법, 중심-주변, 안-밖, 존재-부재 같은 이분법에서 불리한 공간에 위치하는 사람이다.

3.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관한 두 작품

최근 출시된 「에스코바르: 잃어버린 천국」과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나르코스」는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이자 마약왕인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다루고 있다. 우선 「에스코바르: 잃어버린 천국」은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마피아 영화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황당한 포스트모던 갱스터 작품이다. 이

것은 에스코바르가 전설적인 은행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의 자동차를 자신의 상징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또한 그가 자선가이자 충실한 가장이며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위험한 행위와 착하고 자애로운 행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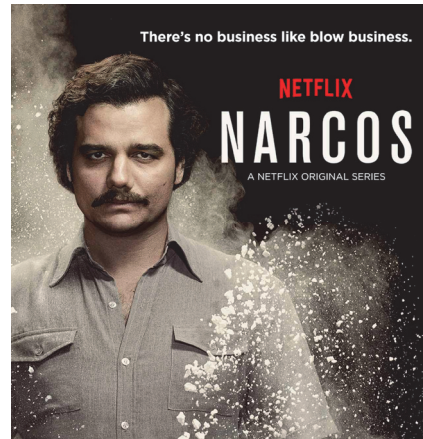
에스코바르는 보니와 클라이드가 타고 있다가 연방 경찰의 총탄세례를 받은 포드 V8을 사회에서 버림받은 착한 사람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의 별장에 있는 모든 보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그 자동차는 보니와 클라이드가 타고 있던 진짜 차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에스코바르가 모든 손님에게 그 낡은 자동차가 보니와 클라이드의 자동차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허풍을 떨면서도 다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지나고 몇 분이 흐르면, 또 다른 에스코바르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정부 고위각료, 법조계 인사, 농부를 마구 죽인 살인자이다.

그러나 제목과는 달리 이 영화의 주인공은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아니라, 젊은 캐나다인인 닉 브래디이다. 이 영화는 닉의 관점에 따라 움직이지만, 결코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스틸러는 1991년에 시작한다. 시기적으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당국에 자수하여 ‘라 카테드랄’이라고 알려진 초호화 교도소에 수감되기 얼마 전이다. 별장을 버리고 떠나기 전에, 에스코바르는 닉에게 시골의 외딴 곳에 자기 재산을 숨겨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안내자와 함께 가야만하고, 그 장소에 도착하면 그 안내자를 죽여 증인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 순간 닉은 자기가 사람을 죽일 용기도 없으며, 그런 천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 영화는 과거로 돌아간다. 1983년 닉은 서핑에 적당한 해변을 찾다가 콜롬비아에 도착하고, 마리아라는 여자와 사귈다. 그런데 마리아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조카이고, 그렇게 닉은 자신도 모르게 메데인 카르텔에 합류한다. 이후 메데인 카르텔 두목의 비호 아래 8년의 삶이 서술된다.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은 갈수록 멀어져가지만, 결국 ‘악마와의 계약’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작품은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전면에 내세워 전기를 영화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보다는 허구가 더 강하다는 인상을 주며, 이런 이유로 20세기 말의 콜롬비아 사회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텔레비전 미니시리즈로 제작된 「나르코스」는 종종 기록물을 삽입하면서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비교적 충실하게 묘사한다. 총 10화로 구성된 「나르코스」 첫 시즌의 1화는 마술적 사실



「나르코스」 포스터
(출처: <http://www.comingsoon.net>)

주의가 “너무 이상해서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이후 “마술적 사실주의가 콜롬비아에서 탄생한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로 대표되는 이런 예술적 경향을 언급하면서, 브라질 감독인 조제 파딜라(José Padilha)는 학술적 정확성을 넘어 또 다른 콜롬비아 사람, 즉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삶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다룬다. 실제로 불법을 저지르면 살아온 에스코바르의 이야기는 신화로 가득하고, 종종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전설을 구별하기 힘들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상상의 결과인지 알아보면서, 20세기 말의 콜롬비아를 피로 물들인 폭력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나르코스」 1화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자이며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인 스티브 머피에 의하면, 콜롬비아 코카인의 역사는 칠레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코카인을 정제하던 주요 거점이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권좌에 오른 뒤 마약밀매업자를 제거했으며, 따라서 이 돈 되는 사업은 콜롬비아로 옮겨갔다. 그러나 1화에 나오는 마약밀매업자 학살은 상상의 산물로 봐야 한다. 그것은 십여 명의 마약밀매업자가 대부분 미국으로 인도되어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로 등장하는 ‘쿠카라차’ 역시 허구적 인물로 여겨야 한다. 에스코바르의 협력자 중에 ‘쿠카라차’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칠레인은 아니었다.

2화의 중심주제는 시몬 볼리바르의 칼과 M-19이다.²⁾ 이것은 허구 같지만 실제로 콜롬비아의 극좌 게릴라 그룹인 M-19는 1974년에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자라고 부르는 시몬 볼리바르의 칼을 흠쳤다. 그들의 행위는 게릴라 운동을 알리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이 미니시리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그들이 에스코바르에게 그 칼을 건네주었을까?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아들인 후안 파블로는 그 칼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의 하나였다고 증언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M-19 게릴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한다. 1991년 M-19는 해체할 때 볼리바르의 칼을 콜롬비아 정부에게 되돌려주었는데, 이것은 그 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또한 M-19는 이 미니시리즈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골을 무대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활동하던 게릴라였다. 이것은 아마도 M-19를 콜롬비아의 모든 게릴라 그룹의 상징으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3화에서는 에스코바르와 정치의 문제가 언급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으며, 1982년에 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얼마 후 의원직을 사임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정치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는 정치인이 마약밀매업자를 타락시켰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에스코바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정치 경력은, 1982년 자유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Luis Carlos Galán)이 자기 정당에 영입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란은 마약밀매업자에 맞선 싸운 사람이었다. 갈란은 에스코바르를 출당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에스코바르는 그런 갈란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나르코스」에서는 로드리고 라라 보니야 법무장관이 의회에서 에스코

2) M-19(Movimiento 19 de abril)는 1970년 4월 19일에 치러진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태동한 콜롬비아의 게릴라 단체이다. 이 선거에서 미사엘 파스트라나(Misael Pastrana)가 구스타보 로하스 피니야(Gustavo Rojas Pinilla) 장군을 이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80년대 말에 들어 M-19는 게릴라 활동을 접고 1991년에 'M-19 민주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 정치운동은 해체되고, 몇몇 주요 인사는 다른 정치단체로 흡수된다.

바르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법무장관은 미국 마약단속국이 제공한 범죄기록 사진을 보여준다. 하지만 범죄기록을 조사하여, 에스코바르가 1976년 마약밀매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은 「에스펙타도르」 신문의 편집장이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게재되면서, 에스코바르를 체포한 두 경찰의 죽



1982년 자유당 후보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유세하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출처: <http://wlth.com>)

음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에스코바르는 면책특권을 상실하고 정당의 압력을 받아 의원직을 사임한다. 그리고 에스코바르는 청부살인업자에게 지시해서 라라 보니야 법무장관을 암살한다.

4화는 1985년 11월 6일에 일어난 희대의 사건을 다룬다. 그날 M-19 게릴라 그룹은 대법원 청사를 점령하고, 이 사건으로 백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나르코스」에서 이 사건은 에스코바르가 M-19에게 요청한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대법원에 보관된 자신의 범죄 자료를 파괴하고자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그 시기에 유포되었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이 테러행위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는 “M-19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M-19 게릴라 그룹이 에스코바르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대법원 점령이 에스코바르의 생각이었다고 밝혀진 바는 없다. M-19의 이런 테러활동은 벨리사리오 베탕쿠르(Belisario Betancourt) 대통령이 평화협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벌인 보복 공격이었다. 또한 미국 정보요원에게 그 공격을 예고한 엘리사라는 게릴라 역시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공격 이후 M-19 지도자가 에스코바르의 손에 살해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M-19의 공동창립자이며 ‘폭군 이반’이라는 별명을 지닌 이반 마리노 오스피나는 1985년 콜롬비아 군에게 사살되었으며, 에스코바르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기 때문이다.

5화의 시작부분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전설의 영역에 속한 것 중의 하나이다. 에스코바르가 콜롬비아 정부에게 마약카르텔과의 전쟁을 멈추면

콜롬비아의 외채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언론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5화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이다. 에스코바르가 활동하던 시기에 죽은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 후보인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의 죽음이 특히 눈에 두드러진다. 갈란이 죽은 후, 그의 자문 위원이던 세사르 가비리아가 갈란 아들의 요청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그리고 가비리아 정부는 마약밀매업자에게 강경 정책을 편다. 그는 갈란의 깃발을 다시 들고서 마약전쟁을 벌이면서, 에스코바르가 자수하도록 협상한다.

6화는 승객 107명과 승무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비안카 203편 폭파사건을 다룬다. 「나르코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폭탄을 폭발시킨 사람은 자기가 비행기를 추락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테러를 주도한 사람 중의 몇몇은 그 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합당한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몇몇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M-19 지도자인 카를로스 피사로를 살해한 살인청부업자와 아비안카 203편을 폭파한 사람도 이런 부류였다. 비행기 폭파 사건은 다리오 우스마라는 사람의 계획이었다. 그가 스페인 테러그룹이자 바스크분리주의 단체인 ETA의 자문을 받았다는 풍문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사제 폭탄을 사용했다. 우스마는 그 테러로 약속한 돈을 받으려는 순간 에스코바르의 부하들에게 살해되었다.

7화는 납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1988년부터 납치를 시작한다. 몇몇은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전통 있는 정치인 가문을 납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아나운서이며 전 대통령 훌리오 세사르 트루바이의 딸인 디아나 트루바이의 납치소식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가비리아 대통령은 이미 미국과 범인인도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마약밀매업자가 자수하여 죄를 고백하면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에스코바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납치를 자행한다.

8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디아나 트루바이는 6개월간 포로생활을 하던 중에 정부가 시도한 구출작전에서 사망한다. 이 사건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납치일기』에서도 다루는데, 이 소설에서 디아나 트루바이

의 죽음은 「나르코스」가 보여주는 것과는 다소 상이하게 서술된다. 「나르코스」에서 디아나 트루바이는 포로로 잡혀 있던 소굴에서 사망하지만,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말하듯이 실제로는 소굴에서 벗어난 후 헬리콥터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 죽는다. 「나르코스」에서는 또한 에스코바르의 동료이자 사촌인 구스타보 가비리아의 죽음도 이야기한다. 그는 보안당국의 도청으로 발각되지만, 에스코바르는 칼리 카르텔 단원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9화는 에스코바르가 수감 생활을 다룬다. ‘라 카테드랄’은 감옥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도소라기보다는 요새이자 호화저택에 가까웠다. 당시 메데인 카르텔 두목의 교도소에는 물침대, 비디오플레이어, 바, 냉장고, 60인치 텔레비전, 욕조, 심지어 벽난로까지 온갖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체육관과 축구장도 갖추고 있었다.

10화는 에스코바르의 탈옥을 이야기한다. 1992년 에스코바르의 호화로운 교도소 생활이 널리 알려지자 가비리아 대통령은 이감을 결정한다. 그러나 통신 문제를 비롯해 작전에 참가한 몇몇 군인이 마약밀매업자와 협력하는 바람에 작전은 실패로 끝난다. 에스코바르는 군경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도주하고, 49명의 군인과 경찰이 도주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다. 또한 10화는 법무차관 에두아르도 멘도사의 납치를 상세히 다룬다. 한편, 에스코바르의 도주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다닌다. 벽을 타고 도망갔다, 땅굴로 도망갔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여장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주 후에 다시 에스코바르 체포 작전이 벌어진다. 1993년 12월 2일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경찰에게 살해된다. 그가 메데인의 중산층 지역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의 일당과 경찰의 총격전이 벌어진다. 에스코바르는 주택가 지붕 위에서 도망치다 다리, 등, 귀 뒤 등에 경찰의 총을 맞고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시즌2의 이야기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